

미래에셋, 박현주 ‘글로벌 전략’ 결실… 운용자산 500조 돌파

〈미래에셋그룹회장〉

3년만에 운용자산 두 배로 불어나
코인 등 디지털 자산시장 영역 확장
“다양하고 우수한 투자 기회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해외진출 22년 만에 총 운용자산 500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이 주도한 ‘글로벌 전략’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의 운용자산(AUM)이 총 500조원에 달했다. 2022년 말 250조원 수준이었던 운용 자산이 약 3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같은 성장 배경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꼽았다. 미래에셋은 지난 2003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유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칠 수 없다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22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홍콩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500조 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

을 운용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의 약 43%(3분기 누적 연결 기준)가 해외 법인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운용사 중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용사는 미래에셋이 유일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도전을 이어온 결과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창출되는 등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에서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견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이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글로벌 ETF 총 운용자산은 3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이다. TIGER ETF는 국내 개인 투자자 선호 1위 브랜드로 자



지난 6월 런던거래소에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 상장 기념 축하 메시지가 송출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리 잡았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Global X’가 다양한 킬러 프로덕트(Killer Product)를 선보이며 ‘글로벌 TOP Tier ETF Provider’로 성장했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ETF 운용사를 인수하며 글로벌 ETF 운용사 능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캐나다 ETF 운용사인 ‘호라이즌스(Horizons ETFs)’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글로벌엑스(Global X)’, 2022년 호주 ‘ETF 시큐리티스(ETF Securities)’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ETF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다. 특히, ‘ETF Securities’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외 ETF 운용사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로,

미래에셋이 해외법인 수익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회장은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앞서 국제경영학회(AIB·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는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International Executive of the Year Award)을 수여했다.

글로벌 무대를 향한 박 회장의 발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통 자산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 현·선물과 전략형 ETF 등 가상 자산 관련 상품을

운용 중이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온체인 펀드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 기술을 확보해 향후 국내 규제 완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해 국내 종합 자산운용사 가운데 처음으로 퇴직연금 전용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M-ROBO’를 출시하는 등 연금 펀드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 펀드 설정액 1위’, ‘TDF 점유율 1위’ 등 연금 펀드 운용 노하우에 AI 기술과 운용 철학을 결합한 종합 연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연금 시장의 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1위로 재선정, 판교 테크윈타워 성공적인 매각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신뢰받는 투자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은 “운용 자산 500조원 돌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의 DNA가 이뤄낸 기념비적인 성과”라며 “단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유일·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투자 전략과 혁신적인 킬러 프로덕트 개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WM·연금 등 서비스 고도화… 투자자 금융 여정 뒷받침

〈자산관리〉

뉴메트로 10년 기획

전환기의 대한민국
투자의 즐거움, 금융 넘어 삶으로

하나증권

WM 부문 조직개편… 경쟁력 강화
AI 기반 포트폴리오 시스템 도입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다. 내일의 자산을 키워내는 ‘성장(Growth)’의 씨앗이자, 더 나은 삶을 향한 발판이 된다. 하나증권은 이러한 투자 본연의 가치를 상기하며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 확대와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 투자자들의 금융 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자산관리(WM)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지난 7월 ‘하나더넥스트실’과 혁신 Growth팀’을 신설했다. ‘하나더넥스트’는 지난해 하나금융그룹이 출시한 시니어 특화 통합 브랜드로, 은퇴자 대상 연금 서비스에 집중한다. 시니어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하나더넥스트 랩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혁신 Growth팀’은 총 4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TFT로 리서치·IT·마케팅·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였다. 말 그대로 혁신적인 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하나증권은 기업금융본부도 재정비하며 기존 IB 그룹을 IB 1·2부문으로 나눠 신설한 뒤 승격했다. 상반기 기준 전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 개점 기념식에서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가운데), 조대현 WM그룹장(왼쪽 두번째), 박춘희 하나증권 THE 센터필드 W 센터장(왼쪽 첫번째)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통 IB 부문에서 회사채 인수실적 증가, 구조화 딜 유치 및 부동산 투자 수익 증가로 수수료 이익은 증가했다. 다만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평가손 및 보유주식 평가손으로 인해 상반기 IB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8억원 감소한 74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수주선 수수료는 12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기업금융 수수료는 198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늘어났다. 각각 37%, 84%씩 증가한 것이다.

하나증권은 “초대형 IB 지정 및 발행 어음 인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인수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확장한 기업금융본부 내 인력 확대 작업에 주력하고 채권자금조달(DCM), 기업공개(IPO) 등 전통 IB 사업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의 자산관리 협의체에서 선정한 추천펀드와 하나증권 리서치 하우스에서 선정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망설이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해 미운용자산이 방지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는 부연이다.

올해는 퇴직연금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화된 포트폴리오 시스템인 ‘AI 연금프로’를 도입했다. 아울러 사내 수익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직원별 수익률을 평가하고, 우수 직원들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등 전체적인 투자 역량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하나증권은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B)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 수익률은 4.00%를 기록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박상빈 하나증권 연금사업단 단장은 “하나증권은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장기 수익률 부문에서 증권업계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과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및 대면 상담채널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대면 손님을 위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인공지능(AI) 챗봇, 유선예약상담, 퇴직연금 전용 상담 전화 등 다양한 지원을 열어 뒀다. 더불어 수수료가 무료인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손님도 전담직원을 배정받아, 퇴직연금 개설부터 수령까지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투자자들의 니즈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하나증권은 미국 등 글로벌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투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제공하며 서학개미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으며, 7월에는 미국 국제 담보대출 서비스를 발빠르게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의 자산 활용 폭을 넓혔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영업본부장은 “하나증권은 날로 높아가는 해외주식에 대한 열기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들이 손님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내년 2월 13일까지 한시적 적용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TX)의 가파른 성장세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0.0023%인 단일 수수료를 대체거래소와 동일한 차등요율로 변경해 지정가주문(메이커) 0.00134%, 시장가격주문(테이커) 0.00182% 적용한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수준으로 기존보다 20~40% 낮아진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과 면제는 한국거래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거래시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의 이러한 행보는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0월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 13조3158억원을 기록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8월에는 절반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